

# 땅끝 해남의 여름밤, 음악으로 물들다

13~14일 문화축제 '울림 페스타'  
4050 타깃 공연·트롯쇼 등 풍성  
지역문화 알리는 '지역로드쇼'도



해남군 '섬머 울림 페스타' 포스터.

해남군은 오는 13~14일 해남군민광장에서 '2025 여름밤의 문화축제 '섬머 울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축제는 매년 8월 열린던 한여름 밤의 문화 축제에 더 많은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개최 일정을 6월로 옮겼다.

'2025 해남 여름밤의 축제'는 전 공연 무료로 진행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여행하기 좋은 계절에 행사를 개최해 전국의 관광객의 참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제는 13일 오후 6시 '해남예술인 한마당'을 시작으로 8시에는 4050세대를 주 타깃으로 한 섬머 트롯 공연이 펼쳐진다. 김현정, 스페이스A, 지창민, 피에스타 등 2000년대 유행했던 가수들이 무대를 꾸며 여름밤 잊지 못할 추억을 소환한다.

이어 14일 오후 8시부터는 방송인 도경완의 사회로 '섬머 트롯 트롯'이 여름밤을 수놓게 된다. 미스김, 추혁진, 정서주 등 낯익은 얼굴부터 나상도, 김승필, 김소연, 염유리, 나영, 김추리 등 국내서

내로라하는 미스&미스터트롯 가수들이 총 출동한다.

14일에는 방송국 프로그램을 편성해 해남군 곳곳의 관광지 촬영과 지역문화를 알리는 '지역순회로드쇼'도 진행된다.

축제 관련 정보는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 해남군민 전용앱인 소통넷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군 관계자는 "희망의 시작 해남 콘텐츠와 관광도시 해남의 매력을 결합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국내외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즐기고 함께 하나가 되어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축제의 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목포 노을 작은도서관 연극 '안중근의 영웅' 무대

목포 노을 작은도서관이 주최한 역사 교육 연극 '안중근의 영웅'이 북항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지난 8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목포 노을 작은도서관이 주최한 역사 교육 연극 '안중근의 영웅'에 출연한 아이들이 공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연극은 안중근 의사의 생애와 희생정신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풀어낸 작품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애국심 고취를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기획됐다.

노을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직접 출연한 이 연극은, 준비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서로 협력하며 팀워크와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이 됐다.

공연은 지역 주민, 도서관 이용자, 가족 등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행사 당일 공연장은 관객들로 가득 찼다. 어린이들의 진심 어린 열연에 많은 관람객들이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이날 행사에는 이기정 전 목포시의회 의원, 송선우 목포시의회 의원, 조정희 북항동행정복지센터 동장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며 아이들을 격려했다.

이기정 전 의원은 "아이들이 안중근 의사의 숭

고한 뜻을 몸소 연기하며 역사를 배우가는 모습에 깊이 감동했다"며 "이러한 경험이 아이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들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안중근의 모습은 깊은 울림을 안겨줬고 이번 무대는 교육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jbs@kwangju.co.kr

## 진도군, 6·25 유공자 출신학교에 홍보 안내판

사진과 참전 기록 담아 예우

진도군은 호국 보훈의 뜻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의 출신학교에 참전유공자들의 사진과 참전 기록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진도군은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출신학교와 참전 기록을 수집하고 사업 참여 의사가 확인된 참전유공자 6명의 출신학교(진도초, 고성초, 의신초, 석교초, 지산초) 5개소에 6월 한 달 동안 홍보 안내판을 설치해 후배 학생들에게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다.

진도군에서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발견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참전유공자를 영웅으로 예우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부터

'시민참여형 보훈문화 확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6·25참전 유공자의 인터뷰를 통해 전쟁의 기억을 기록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청소년들이 매일 지역 내 참전유공자를 방문해 소통하는 '우리동네 영웅들'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영웅들의 기록을 출신학교에 전하는 '우리학교 영웅들'을 통해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영웅들 시리즈 3부작을 완성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6·25참전 유공자들의 모습과 목소리를 콘텐츠로 기록해 미래 세대에게 전달하고, 이들의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선봉해 준 참전유공자에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감사와 존경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 HD현대삼호와 협약 노인회관 증축 등 끌어내



완공 후 시설 운영을 맡게 된다. 노인회관 강당 증축과 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그동안 공간 부족으로 인해 겪어온 각종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은 "목포시의 중요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신 HD현대삼호 임직원 여러분과 김원이 국회의원

남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들이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목포시의회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및 교류 공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왼·연·산·용·해·동)은 HD현대삼호 본관 1층에서 열린 HD현대삼호-목포시 지역협력사업 협약식에 참석해 목포시의 주요 현안 해결에 뜻을 모았다.

지난 9일 개최된 협약식에는 김재을 HD현대삼호 대표이사, 김원이 국회의원, 조성오 목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HD현대삼호가 목포시 노인회관 강당 증축과 원산동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부담하고, 설계 및 시공을 마친 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목포시는 인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 영광군 종량제 봉투값 인상 연말까지 유예

영광군이 서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을 한 차례 더 연기한다.

영광군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유예 기간이 6월 30일 만료되지만 침체한 지역 경제를 고려해 오는 12월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상된 봉투 가격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영광군은 지난 17년간 동결해 온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의 일

환으로 봉투 가격 인상 시기를 올해 6월 30일까지 유예했다

이번 추가 유예 연장 결정은 소비자심리지수 하락과 이에 따른 체감경기 어려움을 감안한 조치다.

영광군 관계자는 "쓰레기 처리 비용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이 시급하지만 군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한 번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 영암 13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지원 길 열려

올해 어가당 130만원씩 받아

영암군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동안 어촌 지역에서 소외됐던 어민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영암군은 해양수산부의 어촌지역 확대 고시에 따라 학산면과 도포면 13개 어가가 올해 처음으로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학산·도포면 어가들은 어촌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왔다.

영암군은 이 같은 행정성 문제를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세 차례에 걸친 노력 끝에 올해 4월 어촌지역 확대 고시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두 지역 13개 어가는 올해 169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받게 됐다.

어촌지역 확대도 해당 어가들은 직불금뿐 아니라 기반시설 확충, 소득 향상, 정주 여건 개선 등 다양한 지원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영암군은 7월 말까지 농업정책과 해양수산팀과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소규모 어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우승의 영암군수는 "단 한 곳의 어가도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해 어촌 지역 확대를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kwangshin.ac.kr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